

태고종 선암사 정상화 '눈앞'

주지 선임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선암사 문제에 중립적 입장의 재적승들이 주도적으로 수습에 나선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암사 재적승들은 11월 18일 광주 학림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선암사 사태의 원만 해결을 위해 '태고종립 선암사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습대책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 현직 주지 및 그 측근 등 이번 사태의 적극 가담자는 일체 배제하고, 승남 15년 이상의 중진급 재적승으로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재적승들은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법전 스님을, 부위원장에 남파·현호 스님 등 총 15명의 수습대책위원을 선임했다.

수습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결과 △전 현직 주지 및 이들이 임명한 소인자 등 양측의

중립적 입장 재적승들 수습대책위 구성

'새주지 선출 방법' 등 합의... 총무원 환영

선암사 사태 적극 가담자를 선암사에서 퇴출시킨다 △임시관리위원회 설봉 스님을 주축으로 선암사를 한시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전산대회(재적승 총회)를 개최해 후임 주지를 선출한다 △태고종립 선암사법 개정 방향 및 선암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연구해 총무원에 건의한다 등을 골자로한 정상화 대책 마련에 진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습대책위원회는 특히 12월 중으로 열릴 전산대회는 전통 신중법에 의거, 선암사 재적기간이 만 5년 이상된 승려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이번 사태에 관련되거나 정적 이상의 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되

지 않은 자는 참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선암사 주지 선출과 관련, 종정스님을 잘 받들고 대중의 화합을 도모하며, 선암사를 총림으로서 손색없이 운영해 갈 수 있는 스님을 선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부장 월해 스님은 "여러차례 입장을 표명했듯이 선암사 재적승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할 뜻은 추호도 없다"며 "선암사 문제를 재적승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사태 수습에 앞장 서는 데 대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선암사법 개정과 관

련해 서면으로 제출되는 재적승들의 건의사항은 정기 중앙총회에서 총림법을 개정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무원측은 사태 책임자의 징계문제, 민형사간 소송 문제, 정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전산대회에서 사면을 결의하는 문제 등은 수습대책위가 결의하거나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완전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선암사는 전현직 주지들이 대화를 통해 선암사 정상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팽팽 선을 달리면서 10월 23일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이런 와중에 11월 3일, 前주지(금웅)측 스님과 신도들은 10월 3일 이후 25일간 총무소를 차지하고 있던 현 주지(승조) 측 스님들을 몰아내고 총무소를 차지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ews.com

총지종 부산 덕화사 헌공불사

경남지역 진언밀법홍포 거점역할 담당

총지종 부산 덕화사(주교 대원)는 11월 23일 덕화사 서원당에서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했다(사진).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해 우승 통리원장 등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헌공불사는 본존제막, 육법공양, 대비로자나불전 호법, 헌화 및 훈향정공, 경과보고, 헌공사, 종명법어, 감사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우승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원정 종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종단은 제2 중흥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은 이곳 덕화사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 대비원을 함께 이루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헌공불사를 가진 덕화사는



대지 296평, 연건평 343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불교전통건축양식에 총지종 고유의 아자관과 만다라, 외부단청 등으로 장엄돼 사원 건축의 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초에 공사를 시작해, 이날 헌공불사를 가진 덕화사는 부산은 물론 경남지역까지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남지역 진언밀법홍포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김장보시·바자회로 이웃 도와요"

천태종 천화사 삼운사 명장사 정광사

천태종 사찰들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열었다.

부산 천화사(주지 월산), 춘천 삼운사(주지 월도), 청주 명장사(주지 화산)는 어려운 형편으로 김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또 울산 정광사(주지 문덕)는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천화사는 11월 18일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위한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천화사는 2,500여 포기인 김치 800여 상자를 담아 부천시 관내 구청 및 봉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삼운사는 11월 22일 배추 1,200포기로 저소득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자비의 이웃돕기 김장' 행사를 가졌다. 또 명장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3,0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3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가족 등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정광사는 11월 3일 경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고, 재활용 의류, 농수산품, 공산품, 각종 먹거리 등을 전시 판매했다. 이날 수익금 전부는 울산시내 3개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불우이웃 100여 가구에 생필품으로 구입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총금강회 회장 이상귀씨 연임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 제 8대 회장에 현 회장인 이상귀씨(사진)가 재선출됐으며, 감사에는 배정남씨와 이장길씨가 각각 선임됐다.

11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밀각십인당과 탐주십인당에서 열린 총금강회 대의원 총회 및 워크숍에서 총금강회는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교도 배가운당'과 '밀교도 리범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군법당 세우고 법회지원까지

불광사 승파 6구 법회, '호국 우리절' 지원

군법당 창건은 물론 지속적인 법회 후원을 하는 단체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불광사 승파 6구 법회(법정 묘원 보살) 회원들.

1999년 보병 제1사단 15연대 1대대 불자들이 비가 새는 막사를 개조해 법회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중과 협의해 법당건립 모연을 시작했다. 이 불사는 정묘심 보살의 남편인 육군 학사장교 1기 출신의 박해욱 가사가 맡아 원만히 회향하게 됐고 절 이름은 광덕 스님이 직접 '호국 우리절'이라고 지었다.

법당 건립 이후에도 불광사 승파 6구 법회 회원들은 매월 1~2회 정도 법회지원을 했고 지금도 이종하 포교사를 중심으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법회날에는 떡볶이, 칼



불광사 승파 6구 법회 회원들은 11월 19일 호국 우리절에서 부대 안병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국수 등의 지원과 L.M.B 심어지가 직접 찬불가를 지도하고 있어 장병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그동안 법당에 난방시설이 없어 추운 겨울에 법회 보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시로 난방 공사를 끝내 장

병들이 추운 겨울에도 편안히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11월 19일에는 병사 생활관 준공에 맞춰 부대 안병을 지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비룡사 주지 무안 스님, 법기 1사단 호국 전진사 주지법사를 비롯해 김성진 부대장 등 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위령제에서는 서울 대성사 도문 스님이 보시한 찬불가 노래방 기

기와 송파 6구 법회 회원들이 준비한 불광출판사 불서 다수, 피아노, 공양 그릇 등 시기가 위문품으로 전달됐다.

매월 마지막주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종하 포교사는 "군법당은 건립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후원과 법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식 기자

김태영 국군불교총신도회장 1군 사령관 취임

국군불교총신도회 김태영 회장(사진)이 최근 대장으로 승진해 11월 17일 1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육사 29기로 101 학군단장, 2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

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5월부터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맡으며 군불교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불자 대상을 수상한 2군 사령관 권영기 장군은 11월 17일 명예 전역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당 건립 후원 : 낮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불교 허점양성 후원 석가모니불상(석조) 문의:02-2004-8291

만인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임제록 강좌 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덕망 높은 선지식을 모시고 경전 강좌를 통하여 서로를 타마하고 경쟁해가는 불교 경전연구회가 1차 육조단경, 2차 선요, 3차 유식 삼십송에 이어 4차 임제록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 강 주 : 無比 큰스님 (전교육원장)
- 과 정 : 6개월
- 장 소 : 서울 미타사 內 대승암
- 일 시 : 2007년 1월 26일(매월 4째 금요일) 오후 3시 ~ 6시
- 수 강 료 : 30만원(교재 제공)
- 수강신청 : 12월30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입금후 전화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58701-04-155072 (예금주 : 김영희)
-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 (지장스님) 재무 010-4500-3142 (승지스님)
- 자 격 : - 조계종 비구, 비구니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
- 사진 1매(반명함)를 꼭 제출바랍니다.

*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알림

- ▶ 특 강 : 12월15일 부처님 점안 복장식에 대한 특강이 있음
- ▶ 불교 경전연구회 주관 함께 공부해온 도반스님들이 고우 큰스님을 모시고 인도 8대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 기 간 : 양력 2007년 3월23일~4월2일 (10박11일) - 동참희망자 약간
- 문 의 : TEL 011-420-7838 (지장)

불교 경전 연구회 일동

무비스님 인터넷 전법도량 다음카페 영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신심명, 증도가, 대승찬, 임제록 등의 불교의 중요한 경전과 어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비스님의 명쾌한 강의로 동시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방편을 멀리 벗어나서 불교 최상승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참하시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실 대중 합장

* 다음카페 <영화실>에는 불교공부에 필요한 수많은 강의녹음과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영화실